

편백나무 부스·다향터널...확 바뀐 다향대축제

22~26일 보성 한국차문화공원·차밭 일원서 개최

프로그램 차별화...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마련

‘제 41회 보성 다향대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및 보성차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방식과 크게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축제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몽골텐트 형태의 부스가 아닌 편백나무로 만든 부스를 설치해 전통성을 강화하고, 행사장 곳곳에서 문어나는 녹차향과 편백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축제장 분위기를 바꾼다. 그동안 축제현장이 차밭과 차문화공원

등에 국한되어 진행했다면 올해는 테마별로 다향터널, 청소년수련원, 주 행사장, 한국차박물관, 주차장 등으로 나누어 축제 행사장 공간을 재구성하고, 핵심 콘텐츠를 요소에 배치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길이 300m의 다향터널 5개를 제작 설치해 관광객들이 이동하면서 터널 안에 마련된 보성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향터널을 통과해서 펼쳐지는 주 행사장과 한국차박물관에서는 차문화 관련

공연과 전시, 찻잎따기, 차만들기, 녹차미용, 녹차축육, 건강증진 체험관 등 녹차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각각각색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서편제 판소리의 고장인 보성의 명소인 득음정을 중심으로 마련된 전통 체험장에서는 차예절과 다양한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등 주 행사장을 벗어나도 얼마든지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주차장에서는 옛날 장터를 재현해 놓은 ‘할머니 번개장터’와 우수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만나게 된다.

이 밖에도 아이들에게는 축제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다양한 차문화와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어린이 다향 홍보단을 운

영해 어린이 기증수첩을 나눠주고 체험 스탬프를 찍고 체험후기가 채워지면 상품 증정도 한다.

보성다향대축제 추진위원회 정형래 위원장은 “기존의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올해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 불리는 보성녹차의 진정한 면모를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다향대축제는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4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됐으며, 차의 계절 5월에 가족과 연인, 동료와 함께 향기로운 보성녹차와 함께 낭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차문화 축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광주 신용초등학교 3학년 정우혁(오른쪽에서 두 번째) 군이 최근 보성 용치 초등학교 전교생과 문화체험학습을 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용치초등학교 제공>

‘전교생 4명’ 보성 용치초등학교 도농 교류학습으로 모처럼 활력

광주 학생 한달간 수업

전교생이 4명에 불과한 ‘초미니’ 농촌 초등학교가 도·농 교류를 통해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광주 신용초등학교(교장 강덕순) 3학년 정우혁 군이 도·농 교류학생으로 보성군 용치 초등학교(교장 이은의)에서 4월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여 일정으로 공부하고 돌아왔다.

정 군은 광주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지만, 할머니 데이 있는 농촌을 체험하고 싶어 교류학습을 자원했다.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 달간 수업 결손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정 군은 4학년 형들과 공부를 함께 했다. 3학년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용치초등학교 전교생은 4학년 2명, 5·6학년 각 1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용치 초등학교만의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은 정 군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정 군은 승마와 골프, 중국어, 문화 체험학습, 차 예절교육 등 도시학교와 다른 다채로운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끽했다.

정 군은 “승마체험 전날은 너무나도 떨려서 잠이 안 왔다. 승마 자세를 저녁 내 연습했는데 말을 잘 타서 너무도 좋았다”며 “부모님께 전화 보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은의 교장은 “현재 도시의 학생들은 ‘시골은 사람도 없고 불편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 군은 도·농 교류를 통해 ‘시골은 평화롭고, 조화로우며, 즐거운 일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작은 학교에 매력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액

5000만달러 달성 청신호

올해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액 5000만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업부가 소득조사 결과 농·수산물 수출은 3891만 달러로 전년(3254만 달러) 대비 19.5% 증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자차와 유자껍질 등 농산물 수출이 72.9%를 차지했다. 특히 김, 미역, 다시마, 멸치 등 수산물은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 하락 현상에도 불구하고 959만 달러를 수출해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림수산물산업 발전 5000 프로젝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기소득과 직결되는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과 수출업체인 협력 체제 유지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유자의 세계 일류상품 육성과 미국, 동남 아시아, 이슬람권 등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비전 5000’ 추진 원년(2010년) 대비 192%의 지역 농·수산물 수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의 면밀한 정보 분석과 수출 유통품목의 발굴 등 해외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림업자 및 업체에 대한 수출담을 시상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보성녹차 오감 품평회 녹차 전문가들이 지난 14일 보성녹차 가공유통센터에서 열린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업체의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는 관내 29개 차 제조 가공업체에서 출품한 43개 제품을 대상으로 차 외형, 찻물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오감(五感)을 통한 관능평가를 실시했다. <보성군 제공>

곡성 원등지구 농촌 용수개발 사업지구 선정

2019년까지 국비 156억 투입

농경지 144ha 관개시설 설치

곡성군 삼기면 원등지구가 삼승 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촌용수 확보·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및 신규지구로

선정됐다.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삼기면, 겸면 일대 143.8ha의 농경지이다. 삼기 원등지구는 관개시설이 부족해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로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다.

17일 곡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에 따르면 올해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156억 원을 투

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유근기 군수는 “원등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전남도 및 농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사업이 완공되면 농경지가 수리안전담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영농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kim@

구례군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216명 경연

공유림씨 일반부 대상

‘제13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구례 문화예술회관과 섬진 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가야금 병창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초·중·고·신인부 단체 및 개인,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치러졌으며 총 216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일반부 대상인 대통령상은 공유림(수원시·사진) 씨에게 돌아갔다. 공유림 씨는 국립 국악고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대학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민이영(충주예술평화고 4년)씨, 고등부 대상(전남도지사상)은 김보경(국립



국악고등학교 3년), 중등부 대상(전남도지사상)은 양희훈(국립 국악중학교 3년), 초등부 대상(전남도지사상)은 김유경(경기도 시흥시 진말초등학교 6년)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이재숙(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심사위원장은 “경연을 통해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 현진에버빌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번지 1층(53평)
정남향 / 초중고인접 / 즉시입주가

◆ 보1억5000만 / 월100만
◆ 전세 4억8000만원

월산동 빌라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4층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개끗 / 주차시설 / 방2 거실1개

◆ 보500 / 월43만 안고가
◆ 대출 4900만원
◆ 매매 9500만원

분양권 매매

▶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12.5평
광주 서구 농성동 417-18번지 12.5평
422세대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 6월초 입주예정

◆ 분양가 7150만원
◆ 매매가 5500만원(일시불 완납)

오피스텔(임대/매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5평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15평
사무용 적합 / 내부개끗 / 즉시입주가

◆ 임대 보300만 / 월25만
◆ 매매 3500만원

674 - 2006